

김일성종합대학강화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현명한 령도

지봉철

민족간부육성의 중심기지이며 주체과학교육의 최고전당인 김일성종합대학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펼친 휘황한 설계도를 따라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공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역사적인 시기에 창립 70돐을 뜻깊게 기념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과 당의 령도밑에 창립후 오늘에 이르는 기간 민족간부육성과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에서 중추적역할을 수행하여온 김일성종합대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새 세기에도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대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빛나는 전성기를 펼쳐오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당은 김일성종합대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종합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길이 빛내이며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종합대학을 세계적인 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학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여 종합대학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고계신다.

김일성종합대학강화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대학의 강화발전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옹호고수하며 대학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변함없이 고수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창립자, 건설자이시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자애로운 어버이, 스승이시며 김일성종합대학은 명실공히 수령님과 장군님의 은혜로운 품속에서 태어나고 장성강화되여온 김일성동지의 대학, 김정일동지의 대학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선 김일성종합대학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시고 혁명사적관을 새로 꾸리도록 하시여 대학을 명실공히 수령님의 대학, 장군님의 대학으로서의 품격을 갖춘 하나의 대혁명사적지구로 전면시켜주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에 어려있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후손만대에 빛내여가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림없는 의지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조선을 빛내이실 맹세를 안으시고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과 탁월한 령도로 시대와 력사앞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시였다.

혁명생애의 전기간 김일성종합대학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명실공히 위대한

수령님의 대학, 당의 대학으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로고와 심혈,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종합대학은 오늘 세계에 명망높은 대학으로 찬연히 빛을 뿌리고있다.

세계일류급대학건설구상을 펼치시고 선군혁명의 길에서 겹쌓인 정신육체적과로속에서도 대학에 세계적수준의 교육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우리 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모신 대학에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함께 모시려는것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 전체 인민들의 한결같은 소망이었다.

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충정심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67돐을 맞으며 대학에 혁명사적관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꾸리고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적이 어려있는 대학전자도서관앞에 장군님의 동상을 최상의 수준에서 정중히 모시도록 하여주시였다.

대학 교직원, 학생들은 물론 온 나라 전체 인민들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에 떠받들려 유서깊은 룡남산과 더불어 주체교육과학의 최고전당으로 빛나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창립일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이 높이 모셔지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2(2013)년 9월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에게 김일성종합대학에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제막행사를 성대하게 하도록 할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각별한 관심속에 김일성종합대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제막식은 장군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대학창립 67돐을 맞으며 10월 1일에 성대히 진행되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을 높이 모심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룡남산에 함께 모시고싶었던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들과 학생들, 졸업생들, 온 나라 인민의 간절한 념원이 실현되었으며 김일성종합대학은 명실공히 수령님의 대학, 장군님의 대학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고 혁명인재육성과 교육과학발전에 쌓아올리신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후손만대에 길이 빛내일수 있게 되었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중심으로 하여 거대한 대학촌을 이룬 룡남산지구는 주체적인 교육, 과학의 발전과 부강조국건설에 쌓아올리신 수령님들의 불멸의 업적이 응축되어있고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과 로선의 정당성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력사의 증견자로, 주체혁명의 최후승리의 려명이 밝아오는 성지로 빛을 뿌리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대학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 빛내어나가도록 하시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김일성종합대학의 제일생명이며 자랑스러운 전통이다.

김일성종합대학은 지난 70년간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주체적교육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대학을 명실공히 수령의 대학, 당의 대학으로 만들며 조선혁명의 승리적전진과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앞에 지닌 사

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백승으로 수놓아진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행로에는 언제나 당과 운명을 같이하고 혁명의 전구들에서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하여온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과 졸업생들의 위훈이 빛나게 아로새겨져있다.

혁명의 준엄한 년대들마다 당의 령도따라 력사의 생눈길을 앞장에서 개척하여왔으며 수령의 유훈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투사들로 자라날수 있는것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사랑과 믿음을 언제나 심장속에 간직하고 살며 투쟁하였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 세기에도 당의 유일적령도체제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보다 심화시켜 대학을 당의 사상과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고 언제나 당중앙과 발걸음을 함께 해나가는 신념과 충정의 결정체로 만드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피눈물의 해 주체100(2011)년을 보내고 새해에도 교육자들에게 돌려주시는 사랑이 고마워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이 올린 편지를 보아주시고 우리 당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동지들을 굳게 믿는다는 사랑의 친필을 보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친필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우리 교육자들모두가 분발하고 또 분발하여 위대한 당, **김일성**조선을 세계가 우러러보게 하라고 하신 장군님의 유훈을 심장에 새겨안고 사회주의강국건설을 믿음직하게 떠메고나갈 유능하고 실력있는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기 위한 후대교육사업에서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것을 바라는 우리 당의 크나큰 믿음이 담겨져있다.

하기에 오늘 **김일성**종합대학은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하는 수령의 대학으로서의 혁명적성격과 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전 교정에 당중앙결사옹위, 당정책결사관철의 혁명적기풍이 짙 차넘치고있으며 그 전통을 세대와 세기를 이어 더욱 빛내어나가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강화발전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대학으로서의 높은 권위에 맞게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선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체제와 교수관리를 개선완비하도록 하시였다.

교육내용과 방법은 인재양성의 질을 담보하는 근본요인이다. 교육내용편성에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은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결정적으로 강화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주체105(2016)년 9월 지식경제시대의 교육은 학생들에게 기존지식을 전수하기 위한것으로가 아니라 학생들이 새롭고 쓸모있는 지식을 더 빨리 알고 더 잘 활용할수 있게 교육내용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정치사상과목교육을 중시하면서 학과목들의 당정책화, 원리화, 통속화수준을 높여 교육내용의 정치사상

성을 철저히 보장하며 모든 학과목들의 교육강령을 실용화, 종합화, 현대화의 원칙에서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완비하여 교육내용전반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관시키고 수많은 과목을 개척하였다. 그리고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가르쳐주신 깨우쳐주는 교수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하여 교수방법을 개선하는데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공고히 하면서 학생들의 지적능력과 응용능력을 높일수 있는 교수과정과 교수수단, 수법들을 창조하는 한편 여러가지 교수형태들을 잘 결합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김일성종합대학에서는 또한 교수단위들을 합리적으로 조직하고 그에 맞게 교원들의 책임교수시간을 바로 정하며 과외교육교양방법을 받아들이는것과 함께 실력평가방법, 시험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실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며 인재강국화, 전민과학기술인재화실현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도록 교육체제와 교수관리체제를 완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우리 식의 새로운 인재양성체제, 수재양성체제, 원격교육체제를 확립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또한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대학의 특성에 맞게 교육과 과학연구의 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만들며 교육조건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도록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창립 70돐을 맞으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결정서를 내려보내여 창립 70돐을 대학의 과학교육발전과 세계일류급대학건설의 전환적계기가 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김일성**종합대학을 교육과 과학연구의 중심기지, 국제학술교류의 거점으로 만들데 대한 웅대한 설제도를 펼쳐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지난 5년동안에만도 현대적인 실험실습설비들도 일식으로 마련해주시고 세계와의 교류를 마음대로 할수 있도록 대외홈페지와 인터넷쌍방향통로, 개인전자우편주소를 개설하도록 하여주시였으며 몸소 시공주, 건설주가 되시여 최고급교육자살림집을 마련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주체교육과 과학의 최고전당으로, 세계일류급대학으로 더 훌륭히 꾸릴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훈을 받들어 **김일성**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의 대학으로 꾸리기 위한 높은 목표를 제기하고 교육과학력량과 교육조건에서는 물론 교육의 질적수준에서도 세계를 앞서나가도록 세심히 이끌어주시였다.

김일성종합대학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관심속에 주체101(2012)년에만도 2차례의 권위있는 국제학술토론회를 주최하고 해마다 세계 수많은 대학들과 학술교류를 확대하였으며 대학창립 70돐을 맞으며 《과학발전과 사회적진보》라는 주제로 세계 여러 나라 대학들의 저명한 교수, 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국제학술토론회가 성대히 진행되였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세계를 앞서나가는 첨단돌파전의 승리에 있다는것을 심장깊이 새긴 **김일성**종합대학의 교원, 연구사들과 대학생들은 우주론, 나노비선형광학, 량자정보학, 라만분광학, 대수학, 계놈배렬해석 등의 분야에서 세계적인 미해명문제들을 련이어 해결하여 나라의 종합적과학기술력을 만방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지구상에는 오랜 력사와 전통, 규모를 자랑하는 수많은 대학들이 있지만 **김일성**종합대학처럼 절세의 위인들의 위대한 품속에서 자기의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고 위대한 수령님들과 지식인, 위대한 스승과 제자들이 하나의 혈맥으로 이어진 혼연일체의 위력

으로 줄기찬 발전의 길만을 걸어온 최고전당은 없다.

위대한 스승의 손길로 온 나라에 새 세기 교육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나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가까운 앞날에 우리 나라는 세계가 우러러보는 21세기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우뚝 솟아오를것이다.